

2026년 춘천주교 김주영 시몬 신년메시지

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,
2026년 병오년(丙午年), 붉은 말띠의 새해가 밝았습니다.
붉은 말의 힘찬 기운처럼,
새해에는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열정,
그리고 성령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.
달려가는 말의 발걸음처럼
여러분의 믿음도 더욱 굳건해지고,
가정과 일터에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.
주님 안에서 더욱 사랑하고,
더욱 나누며,
더욱 기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.
“주님,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!”(시편 67,2)
2026년 새해에도 하느님의 은총이
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.
새해 주님의 복 많이 받으시고 복을 많이 지어 이웃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!

2026년 새해에
춘천주교 김 주 영 시몬